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대림제3주일

제34권 55호(나해) 2014년 12월14일

[묵상]



대림 3주

"Who are you? "

또 하나의 새로운 대림초가 빛을 밝히고 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힘든 이들에게
오늘 복음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과연 이들에게 주님의 오심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과연 우리들은 무슨 말을 해 줄 수 있을까?

"하느님은 자비하시다"고,
"하느님은 사랑이시다"고,
"하느님만 믿으면 모든 것을 하느님이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누가 나에게
"당신 누구요?" 했을 때,
당신을 도와주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사.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Who are you? "라고 묻는다.

- 오 -

petrus3@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연령회 (장래시 연락처) : (310)720-8240

월요일	새벽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미사 학생미사(영어) 낮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아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프레아(4째주)	저녁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텍시오 디비나) 소년 레지오 마리아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4:30 오후 7:00
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레(작수달 4째토요일) 배론청년회 모임	오전 10:00 오후 6:00 특전미사후
주일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메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건회 오후 1:00 ● 꾸리아 오후 1:45 3째주 - ● 요셉회 ● 사목회장단 오후 1:00 4째주 - ● 사목회 오후 1:00 ● 빈첸시오회 오후 3:00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오향숙 마우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민찬기 요한, 김문성 & 홍봉순, 변혜경 올리안나
	(생)김행선 올리아나, 오세원 아타나시오 & 오혜숙 루시아, 서성용 베드로, 유보나 보나 & 이영진 레오날드, 김옥안토니오 & 김행자 올리안나
주 일 낮미사	(연)이경용 야고보, 이윤조 클라라, 박무성, 김복순 막달레나, 송중복 & 양옥분 켈마, 고준희 제임스, 전시웅요한, 이중갑 부르노, 이용식 베드로, 변혜경 올리안나, 김복님 마리아 & 김차옥요셉, 박지열, 이석진 가브리엘
	(생)서성용 베드로, 홍석인 체칠리아, 박마오로&이그레이스, 레지오 마리아단원들, 이근모 마리노 & 이행자 리드비나, 박혜경 레나타 & 박진수 스테파노, 성령기도회원들, 이순자 비비안나 & 이민상 요한, 엄영숙 마리아, 현시영 요셉, 정열모 미카엘 & 정미영 미카엘라, 오혜숙 루시아, 이장환 마르띠노 사제, 오창근 베드로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이사야 (Isaiah) 61, 1-2, 10-11

화답송 ○내 영혼이 내 하느님 안에서 기뻐하네.



내 영혼이 내 하느님 안에서 기뻐하 - 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내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내 마음 기뻐 뛰노네. 그분이 비천한 당신 종을 굽어보셨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하리라.○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큰일을 하셨으니, 그 이름은 기록하신 분이시다. 그분 자비는 세세 대대로, 그분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미치리라.○
○ 굽주린 이를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고, 부유한 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네. 당신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돌보셨네.○

제 2독서 테살로니카1서 (Thessalonians) 5, 16-24

복 음 ○ 알렐루야.

환호송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복 음 요한 (John) 1, 6-8, 19-28

영성체송 마음이 불안한 이들에게 말하여라. 힘을 내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우리 하느님이 오시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124	129	133
봉헌	270	217	269
성체	특송 Breath	306	307
파견	401	132	129

올바른 성령 이해

성령과 쇄신

3. 성령에 관한 새로운 이해

3) '성령쇄신운동'

미국 가톨릭 교회 주교회의에서는 이 운동과 관련해서 1969년, 1975년, 1984년 그리고 1997년에 몇 편의 긍정적인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1984년에 발표된 성명서는 이렇게 시작한다. “우리는 ‘성령 세례’ (사도 1,4)라고 알려진 성령의 선물과 은사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확인과 지원과 격려의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이 적절한 일이라고 느꼈습니다. 성령의 작용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삶과, 또한 그들을 통해 교회의 삶에 미치게 된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또한 교회의 삶을 새롭게 하기 위한 그들의 노력에 격려를 보냅니다.”

미국 교회에서 긍정적으로 수용된 성령쇄신운동은 전 교회의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수용된다. 예를 들면, 1975년 제9회 성령 쇄신에 관한 로마의 국제 대회에서 바오로 6세 교황은 다음과 같은 인사말로 참석자들을 맞이하였다. “교회와 세계는 성령 강림의 기적이 역사상 계속되기를 어느 때보다 더 바라고 있습니다. 갈수록 급속도로 세속화되어 가는 이 시대에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신앙 쇄신’ 을 증언하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어떻게 이 영적 쇄신이 교회와 세계에 또 하나의 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미국에서 시작된 성령쇄신운동은 전 세계로 퍼져 나가면서 성령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다. 그러한 가운데 요한 바오로 2세 교황(†2005)은 1986년에 성령에 관한 회칙 「생명을 주시는 주님」 (Dominum et Vivificantem) 을 발표하여, 성령께서는 교회를 통해 복음을 선포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신다고 강조하였다. 성령쇄신운동은 한국 가톨릭 교회에도 도입되어서 교회의 활성화와 신자들의 신앙 쇄신에 일익을 담당하게 된다.

4) 한국에서의 ‘성령쇄신운동’

한국에서의 성령쇄신운동의 시작은 1970년을 전후해서 몇몇 외국인 선교사들이 주도한 기도회와 피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시기에 특기할 만한 것은 1971년 5월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13명의 외국인 신부, 수녀, 수사를 대상으로 개최된 성령 강림 대축일 피정인데, 여기서 참석자들은 특별한 성령 체험을 하게 된다. 41) 이 피정에 참석했던 이들은 정기적인 성령 기도 모임을 갖게 되고, 나중에는 몇몇 한국인 신자들이 이들 모임에 합류하였다. 1973년 12월5일에는 ‘성령 운동 협의회’가 결성되었다.

<◆계속>

주님을 증거하는 이

세례자 요한은 이사야 예언서의 말씀대로, 주님이신 예수님보다 앞서서, 주님의 길을 닦아놓았습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나타나 죄의 용서와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으며, 요르단 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지난 주일의 복음 말씀인 마르코 복음은 이러한 세례자 요한의 선포와 세례를 우리에게 이미 들려주었습니다. 대림 제3주일인 오늘은 요한 복음사가를 통해 세례자 요한의 이러한 행적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곧 세례자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그를 만나기 위해 온 사제들과 레위인들과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들입니다.

많은 이들, 특히 사제들과 레위인들은 요한의 정체에 대해 알고 싶어 했습니다. ‘도대체 그는 누구란 말인가? 그는 메시아였는가?’ 그들의 이러한 관심사에 요한은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대로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광야에서의치는 이의 소리다.”(요한 1, 23)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오늘 복음 말씀과 관련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자 요한은 소리였지만 주님은 태초부터 말씀이셨습니다.

요한은 지나가는 소리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태초부터 계시는 영원한 말씀이셨습니다.”(대림 제3주일 독서기도) 오늘 복음인 요한 복음의 시작에 따르면, 세례자 요한은 빛을 증언하러 온 이였으며, 이는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기 위해서였을 뿐, 세례자 요한은 빛이 아니며 단지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빛이시며, ‘세상에 오신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요한 1, 9)이신 것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이 우리에게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것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러 온 것처럼, 우리 또한 그분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은 하느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며, 그러한 사람들의 생활은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 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1테살 5, 16~18)라는 바오로 사도의 권고에 따라 하느님께 충실하게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은 또한 자선 주일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림에 있어서 자선을 행하는 것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과제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주님을 준비하며 회개를 외치고 세례를 베풀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삶 속에서 언제나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조성문 마르티노 신부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교수

부모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겨울에 지나간 밤
어머님하고 둘이 앉아
옛이야기 들려라
나는 어찌면 생겨나와
이 이야기 듣는가
묻지도 말아라 내일 날에
내가 부모 되어서 알아보리라

◆김소월 시

이번주 전례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정광미 프란체스카	남성철 베네딕도
제1독서자	정진욱 노엘	김교복 레오	장영진 안토니오
제2독서자	유보나 보나	박혜경 레나타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남 3반

다음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곽수진 보나	신덕례 데레사	이재용 안드레아
제1독서자	곽수민 히메리오	이민상 요한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정진욱 노엘	이순자 비비안나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토서 3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은혜로운 미사를 위하여 미사 시작 30분 전에 목주기도 5단을 바칩니다. 목주기도와 함께 정성껏 미사를 봉헌합니다.

◆ **대림 합동 판공성사 : 12월17일(수)**

- 참회예절 : 오후 7시
- 고해성사 : 오후 7시30부터(주일학교 성사일정 같음)
- 대림시기중(대림1주부터 매일) 드리는 고해성사는 판공성사입니다. 특히 어르신들께서는 미사전에 드리는 고해성사에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평일 미사시간 임시 변경 안내**

본당 신부님의 대림판공성사 출장관계로 평일 미사시간을 변경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16일(화), 17일(수), 18일(목) 저녁미사가 아침미사로 변경됩니다(오전 8시30분).

◆ **성탄맞이 대청소와 카펫클리닝**

성탄대축일을 앞두고 성전 안팎과 2층교실, 화장실, 친교장, 부엌, 정원, 축구장 등 본당 시설물 구석구석을 대청소합니다.

- 전교우 대청소 : 오늘주일 (14일) 낮미사 마치고 친교 점심후
- 청소 담당구역 : 구역장/반장, 게시판 안내 참조
- 카펫클리닝 : 15일(월), 16일(화)
- 문의 : 김명재 아가다 소공동체부장 ☎(310)866-8778

◆ **천상의 어머니 꾸리아 연차 총 친목회 안내**

- 일시: 오늘 주일(14일) 오후 2시 30분
- 장소: 강당
- 대상: 레지오 활동단원
- 문의 : 남 성철 베네딕도 ☎(310)408-1443

◆ **백삼위 배론청년회 송년 '배론의 밤' 안내**

- 일시 : 12월20일(토)특전 미사후
- 장소 : 강당
- 대상 : 배론청년회원, 방학을 맞아해 본당에온 청년들, 청년회에 관심있는 본당 청년들
- 연락처 : 최태훈 아오스당 ☎(310)508-2123

◆ **요셉회 12월 모임**

- 일시 : 12월21일(주일) 미사후
- 장소 : 강당

◆ **건강보험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 일시 : 오늘 주일 (14일)
- 장소 : 11시 미사후 야외 친교장 또는 강당
- 주최 : 사회복지분과
- 문의 : 이정훈 안셀모 ☎(310)908-8823

◆ **자모회에서 전신자분께 14일(오늘주일)9시30분과 11시 미사후에 도넛과 커피를 무료로 대접합니다.**

◆ **2014년 교무금과 성전헌금을 12월중에 마감합니다.**

- 올 한해도 교무금과 성전헌금 그리고 특별헌금과 감사헌금을 봉헌해주신 교우여러분들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 내년초 Income Tax Return(개인세금보고)를 앞두고, 올해 낸 교무금이 남아있을 경우 12월 중에 마감해주시면 감세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 오시면 본인의 헌금기록(2014년) 조회가 가능합니다.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12월14일(주일) * 토남 3반 : 짜장밥 (\$3)
* 주일학교 : 카레라이스(2학년)
- 12월21일(주일) * PV 2,4반: 북어국 & 부추겉절이 (\$3)
* 주일학교 : 겨울 방학, 수업없음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성전헌금
경철호 고천용 국세찬 김 명 김 욱 김광자 김교복 김기정 김상근 김선제 김성현 김옥보 김옥찬 김원호 김일선 김재희 김종문 김주량 김학겸 김형순 김효진 남성철 노혜숙 민기남 박씨니 박영식 박영희 박인식 반정이 방정복 배태임 석순영 유근우 유철희 윤희동 이경수 이근모 이남현 이상곤 이상덕 이영희 이원형 이은경 이은록 이종선 이형삼 이형철 이효세 전정일 전정자 정훈모 주용순 최기남 최재영 황인중 송마이클 영희가보라 익명 합계:\$7,140	경철호 고천용 국세찬 김 욱 김광자 김교복 김기정 김선제 김원호 김재희 김종문 김주량 김효진 남성철 노혜숙 민기남 박씨니 박인식 방정복 석순영 유근우 유철희 윤희동 이경수 이근모 이남현 이상곤 이상덕 이영희 이원형 이은록 이형삼 이효세 정훈모 주용순 최기남 최재영 황인중 송마이클 영희가보라 합계 : \$4,210 감사헌금 : \$200
주일미사 헌금 : \$2,638 2차헌금 : \$1,050 한남체인 : \$230	주보광고비 : \$250 성물부수익금 : \$618.50 재활용 : \$172.99

◆한인 가톨릭 청소년대회

Korean American Catholic Youth Day

고등학생들은 모두모여라! 함께모여 우리의 문화와 신앙을 나누자!!!

- 주제 : "Joy of the Gospel"
- 장소 : Servite High School (애너하임)
- 대상 : 8학년 ~12학년
- 일시 : 2015년 1월 3일(토) 8:30am~7:30pm
- 참가비 : \$30 (by12/ 21, \$40 after)
- 참가신청 : www.fiat.org
- 문의전화 : 714-772-3995 (Ext.106)

*점심식사와 기념셔츠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2014 SAT II 한국어시험

축하합니다. 백삼위 한국학교 학생들이 2014년 SAT Subject Test 한국어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 만점자 : 장준서 (9학년)
- 차점자 : 김주은, 김승현, 이성경

◆ 주일학교 / 한국학교 겨울방학

- 12월21일, 28일 두 주일 수업 없습니다.
- 오전 9시30분 학생미사는 그대로 영어로 진행합니다.
- 개학 : 1월4일(주일)

“새 신자 환영합니다.”

남가주 소식

◆ 성 아그네스성당 연말선물용 이나시오 커피판매

- 가격 : \$10, \$20, \$50
- 주문 : 카페방문, 전화, E메일
- 수익금은 컴퓨터조성, 나눔실천, 성당건립을 위해 사용됩니다.
- 문의 : 이나시오카페 ☎(323)731-4433

◆ 가톨릭 예수회 성경대학8학기

- 일시 : 1월9일(금),10일(토) 저녁 7시~10시
1월11일(주일) 낮2시~5시
- 장소 : 성아그네스성당 회관
- 수강료 : \$50 (\$20/1일)

◆ 작은 예수회 "함께삶의 기쁨" 행사

- 일시 : 2014년 12월20일(토) 오전 11시
- 장소 : 작은예수회 LA분원
1137 Arapahoe St. LA CA 90006

☺ 서로 인사 합니다. ☺

소공동체 부 장 김명재 아가다 (310)866-8778
차 장 박은혜 클라우디아
차 장 김희연 루시아 정병옥 율리아

구역/장	반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강순복 요세피나 991-4838	이순자 비비안나 991-4838 12/12(금) 오후 6시
	2	김찬구 요한 701-6343	김민수 바오로 986-1890 12/20(토) 오후 6시
	3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12/12(금) 오후 7시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강인모테오도시오 780-3258	박근식 미카엘 294-9444 12/13 (토) 오후 6시
	2	이호미 엘리사벳 991-8556	이형상 요셉 991-8556 12/13(토) 오후 5시
	3	정광미프란체스카 617-1132	이금순 카타리나 424-230-1146 12/12(금)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최옥희 데레사 508-2912	1	김준 방지거 625-3312	김상근 바오로 625-3312 12/19(금) 오후 7시30분 성당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이윤옥 마리아 634-6923 12/12(금) 오전11시 강당
	3	송미숙 미카엘라 850-2822	전하현 마리아 213-550-6653 12/13(토) 오후 6시
토런스 북 조화숙 안젤라 213 272-8393	1	정병옥 율리아 404-1607	정병옥 율리아 404-1607 12/15(월) 오후 7시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권태만 실베스텔 989-9077	1	박진수 스테파노 / 749-3151	권태만 실베스텔 989-9077 12/13(토) 오후 7시 합기도장
	3	1,2반과 같음	
P. V. 남경희 베네딕다 384-3289	1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박종선 리비나213-700-6983 12/12(금) 7시 Lampost Pizza
	2	유지아 클라라 793-6157	김관기 라파엘 541-3687 12/13 (토) 오후 6시30분
	3	송인선 안젤라 503-927-0770	송인선 안젤라 503-927-0770 12/3(금) 오후 7시 강당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변복순 베로니카 617-3568 12/16(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제 단체 모임의 날	오후1시
------------	------

다음주 단체모임

사목회장단, 요셉회	오후1시
------------	------

124위 시복특집 < 15 > 최인철 이냐시오(?~1801년)

...사학의 괴수로 서울에는최인길, 최창현, 최필궁, 최인철이 있고 지방에는 윤유일과 이존창이 있다...

한양의 역관 집안에서 태어난 최인철 이냐시오는 1795년 포도청에서 순교한 최인길 마티아의 동생입니다. 일찍이 형에게 교리를 배워 입교한 최인철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791년 신해박해 때 형과 함께 체포되어 형조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형조에는 이미 여러 동료들이 끌려와 있었는데 최인철은 동료들과 함께 협박과 회유, 형벌을 번갈아 받아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형 최인길과 몇몇 신자들은 굴복했지만 최인철은 끝까지 신앙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러자 형조에서는 최인철 등 뜻을 굽히지 않는자들을 풀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건의하였고, 임금 정조는 “필부의 뜻도 함부로 빼앗을 수 없는 것이니 3일간 말미를 주어 집에서 스스로 뉘우치게 하라.”고 명하였습니다. 최인철이 집으로 돌아오자 늙은 어머니와 형제들은 눈물을 흘리며 천주교를 믿지 말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최인철은 사흘 뒤 관가에 나가 다시는 천주교를 믿지 않겠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내 마음을 돌려 “비록 때를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천주교를 사악한 종교라고 말할 수는 없다.”며 신앙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결국 정조 임금의 회유를 받아들여 “천주교를 믿지 않겠다.”고 약속한 뒤 석방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의 품으로 돌아온 형과 함께 교회의 일을 도우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특히 형 최인길이 주문모 신부의 피신을 돕다가 순교한 뒤 최인철은 교회 지도층의 일원이 되어 더욱 열심히 교회 일에 참여하였습니다. 포도청에서 신문을 받던 사람이 “사학의 괴수로 서울에는 최인길, 최창현, 최필궁, 최인철이 있고 지방에는 윤유일과 이존창이 있다.”고 진술할 정도였습니다. 1801년 최창현과 최필궁의 체포 소식을 듣고 신변에 위험을 느낀 최인철은 외숙모의 집에 피신했지만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포도청과 형조에서 여러 차례 문초와 형벌을 받은 뒤에도 그는 10년을 지켜온 신앙을 배척할 마음이 없다고 단언하였습니다. 그러자 형조에서는 그에게 다음의 다섯 가지 죄목을 적용하여 사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첫째 1791년에 ‘천주교를 믿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저버린 죄, 둘째 형이 때 맞아 죽은 뒤에도 천주교를 신봉한 죄, 셋째 동료들과 함께 천주교 교리를 널리 전파한 죄, 넷째 체포된 뒤에도 천주교 교리를 옹호한다고 설명한 죄, 다섯째 주문모 신부를 영입하고 그를 섬긴 죄. 1801년 7월 2일, 최인철은 동료들과 함께 서소문 밖으로 끌려나가 참수형으로 순교하였습니다.

◆ 서울대학교 홍보국원

[전례 상식]

대림시기에 특히 마리아, 요한 세례자, 이사야 예언서가 부각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마리아를 부각시키는 이유는 대림 시기가 구원신비와 마리아의 관계, 하느님의 구원 사업에 대한 마리아의 협력에 대해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요한 세례자가 부각되는 이유는 그의 임무가 메시아의 전령으로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이스라엘에게 ‘구원받는 길’을 알려 주며, 이미 당시 백성 가운데 계시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사야 예언서에는 어렵고도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을 위로하였던 희망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정의철 신부 / 생활성서

어느 집 입구에 써있는 글

어느 집 입구에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화내도 하루"

웃어도 하루"

어차피 주어진 시간은

"똑같은 하루"

기왕이면

불평 대신에 감사!

부정 대신에 긍정!

절망 대신에 희망!

우울한 날을, 맑은날로 바꿀수 있는건

바로 당신의 미소일겁니다.

글이 넘 좋아 글에 도취되고 실행함으로 가치가 증대된다면, 행복이 올 것입니다.

우리 말에 "덕분에"라는 말과 "때문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의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준답니다.

언제나 긍정적인 태도를 반복적으로 선택하여 경영의 신'으로 불린 일본의 전설적인 기업가인 마쓰시타고노스케 말입니다. 그는 슬한 역경을 극복하고 94세까지 살면서 수많은 성공신화를 이룩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승리 비결을 한마디로 '덕분에'라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덕분에' 어릴때부터 갖가지 힘든 일을 하며 세상살이에 필요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저는, 허약한 아이였던 '덕분에' 운동을 시작해서, 건강을 유지할수 있었습니다.

저는 학교를 제대로 마치지 못했던 '덕분에' 만나는 모든사람이 제 선생이어서 모르면 묻고 배우면서 익혔습니다.

참 그는 멋진인생입니다.

남들 같으면 ~때문에' 요렇게 힘들고 요모양이 되었다고 한탄하고 주저 앓을 상황을 '덕분에' 로 둔갑시켜 성공비결로 삼았으니 정말 대단한 사람이 아닐수 없고 그 앞에 머리가 숙여집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매사를 긍정적으로 보는 '덕분에'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늘 부정적으로 한탄하며 탄식하는

'때문에'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도,

사랑하는 당신 덕분에

부모님 덕분에..

좋은 친구들 덕분에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 덕분에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멋진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살면서 놓치고 싶지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 마리아 사랑넷 / 퍼은글